

Q9

산불로 피해를 입기 쉬운 주택과 구조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?

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먼저 산림과의 거리가 평균 2.9m로 매우 가까웠으며 전체 피해 시설물의 76%가 전통가옥의 지붕구조 형태였습니다. 주변 환경은 88%가 소각흔적이 있거나 장작, 두엄이 있어 불뚱이 떨어질 경우 위험한 상태였고 집 주변은 76%가 소나무 숲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

복사열과 불뚱과 같은 비화 물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결과, 지붕재와 벽재는 불연재로써 위험성이 거의 없었지만, 처마 및 지붕 구조재와 마루의 경우 목조로 제작되어 화염에 쉽게 불탈 수 있습니다. 또한 지붕을 연장하거나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복사열과 비화물질에 취약했습니다.

가옥 주변에 쌓여있는 장작, 폐지 등도 위험 요소였습니다.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집 주변에 있다면 산불이 집불로 번지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



패널건물에 의한 피해

2024년 산불 제대로 알기



방화벽에 의한 피해 방지



내화수림대 조성 효과



산림과의 이격 거리 효과